

[TV]

TV 1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EBS. Each column lists program titles, times, and channel numbers.

전노민 "이제야 제 이름을 찾은 것 같아요"

SBS '사랑과...'서 홍조역 맡아 호평...탤런트 김보연 남편으로 유명

"제 얼굴은 알아도 이름을 정확히 아는 시청자는 별로 없었어요. '사랑과 야망'이 제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죠. 갑작스럽게 인기를 얻고 있는 SBS TV 주말드라마 '사랑과 야망'에서 자신의 욕망을 거침없이 발산하는 인물들 속에 전노민(40)이 연기하는 홍조는 단연 눈에 띈다. 여유로운 가정에서 반듯하게 자라 의사가 된 뒤 주변에 아낌없이 애정과 직언을 쏟아낸다. 신봉치 못한 점을 하나씩 가졌으면서도 불같이 살아가는 주인공들과 달리 홍조는 무엇 하나 부족한 점이 없이 다른 이들의 짐까지 덜어준다. 그러면서도 그 부드러움이 나름의 강단과 주관을 품착하지 않는다.

"김수현 선생님은 홍조를 산소 같은 캐릭터로 그리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남자 정말 있어?' 싶은 정도까지요. 홍조가 자칫 우유부단해 보일 수도 있고 중심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심 없이 그런 마음으로 연기하려고 해요." 김수현 작가 특유의 대사가 톤이 입에 착착 붙는 것도 홍조를 눈에 띄게 하는데 한몫했다. 괜한 말꼬리 없이 탁탁 끊어지는 말투가 어색하지 않아 시청자들이 금세 전노민과 홍조를 밀착시킬 수 있었다.

"아내가 20대에 김수현 선생님 드라마를 연달아 하면서 인기를 얻었는데 제가 연기하는 걸 보더니 '당신 대사 톤이 잘 맞아'라고 하더라고요. 대본에는 입에 안 붙고 뜻을 잘 모르는 옛날 단어도 많아요. 인터넷으로 뜻을 찾아보면서 연습하죠. 사실 캐릭터가 어려워서 대사 톤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1995년 CF로 연예계에 발을 들여놓고서 10여 년이 지나야야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다. 홍조를 연기하기 전까지 여러 드라마에서 주-



조연을 맡았지만 김보연과의 결혼 후에는 '김보연의 남편'에 이름이 가졌다.

이내의 유명세가 기본 나날 일은 아니지만 탤런트 전노민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은 한 구석에 꾸준히 자리했다. 홍조 역은 그래서 전노민에게 남다르다.

"길을 가다 보면 '저 사람 누구지', '김보연 남편이잖아' 하는 대화가 들렸어요. 연기자로서 내 이름을 듣고 싶은 욕심이 계속 있었죠. 홍조가 비중에 작지 않아 제작진이 저를 선택하신 게 굉장한 모험이셨을 겁니다. 홍조를 연기하면서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고 조금씩 제 이름을 찾아가고 싶어요."

Living TV 김현영의 여행사랑-홍콩 (오전11시 20분)
배낭 여행계의 대모 김현영과 함께 떠나는 유쾌한 세계 여행기. 게스트 주민희와 함께한 홍콩 여행기가 펼쳐진다. 세상이 어디에서도 비슷한 곳을 찾아보기 힘들만큼 독특한 매력을 가진 홍콩, 홍콩섬의 이모저모 살펴본다. 홍콩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켄즈로드와 할리우드 로드를 따라 걸어보고, 영화 '중경삼림'으로 유명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만모사원으로 이동한다. 만모사원은 홍콩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사원으로 문신과 무신을 함께 모시는 곳으로 전해진다. 만모사원을 둘러본 후 세 계 음식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소호거리와 랑카이풍을 찾아간다. 홍콩의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 이색바로 들어가 아이스티를 마시며 여행의 재미를 만끽하는 두 여성. 피크트램을 타고 빅토리아 파크로 올라가 야경을 바라보며 홍콩의 매력을 이야기한다.

케이블·위성TV 14일

Large table listing various cable and satellite TV channels and their programs, including YTN, MBN, KTV, MBC MOVIES, OCN, SBS, KBS, EBS, and others.

www.kjbb.com
www.kjbb.com
www.kjbb.com

BBS 불교방송
www.kjbb.com
www.kjbb.com